

##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경 성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본 연구는 한국인 부부들의 이혼의도를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이혼의도의 예측변인들로 다루어진 변인들은 비교수준, 배우자에 대한 애정, 부부간 의사소통, 결혼만족, 결혼관계의 개입과 투자,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 주변사람들의 영향 및 이혼의 장애요인이었다. 준거변인인 이혼의도는 이혼하고자 하는 의도, 과거의 이혼시도 경험 및 이혼계획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기혼자 493명(남 246, 여 247)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혼의도와 예측변인들의 관계를 단순상관관계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혼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 수준이었으나, 남편과 아내의 이혼시도 경험, 그리고 아내의 이혼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변사람들의 이혼 반대였으며, 남편에게 있어서 장차의 이혼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결혼관계에의 의존도였다. 이 결과로부터 한국의 부부들에게 있어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게 하기는 하나, 이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혼의 시도 및 계획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이혼의도, 비교수준, 애정, 부부간 의사소통, 결혼만족, 개입, 투자, 대안, 이혼의 장애, 사회망, 실증연구

전형적인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관계로부터 오는 보상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함으로써 이익이나 긍정적 성과를 가지려고 동기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상을 주리라고 믿는 관계를 시

작하고 유지하며, 보상이 없거나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는 해체하리라고 가정된다. 즉, 이익을 내는 관계에 만족하고 이 관계가 유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계가 해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에 불만족하더라도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며, 이는 현재 관계 이외의 대안이 없거나 그 관계에 개입되어 있거나 혹은 관계를 해체하는데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관계의 해체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의 유지와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어떤 변인들이 한국인 부부의 관계해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결혼만족

결혼만족은 결혼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긍정적 태도로 정의된다. 관계만족이 관계해체를 예언하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주로 종단연구들이다. 전형적으로 첫 시기에 관계만족을 측정하고 수 주, 몇 달, 혹은 몇 년 후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이처럼 종단 자료를 이용해서 관계만족과 해체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관계만족은 관계의 해체를 예측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e.g., Lund, 1985; Berg & McQuinn, 1986; Rusbult, 1983).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연애관계나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에 관계가 해체되어서 이혼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관계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 가운데 하나인 Van Yperan & Buunk(1990)의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에 부부관계가 해체된 부부들이 한 두 사례 뿐이었기 때문에 결혼관계의 해체를 예언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서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들도 발표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Gottman과 Levenson(2000)은 결혼생활에서의 상호작용 패턴들이 초기와 후기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14년 동안의 종단연구를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결혼만족과 결혼생활을 해체하고자하는 생각들은 이혼을 예측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연구 기간 도중 이혼하는 사례를 더욱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을 직접 연구하는 대신 이혼에 근접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로 이혼의도, 이혼 시도 및 이혼계획을 구분하고 결혼만족이 이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만족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결혼관계에 만족할수록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다.

### 배우자에 대한 애정

관계를 이루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 또한 관계만족과 더불어서 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Sternberg(1986, 1988)에 따르면, 사랑이란 친밀감과 열정 및 결정/개입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삼각형으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사랑은 ① 가깝고 상대방과 서로 연관이 있고 맺어져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상태인 친밀감, ② 로맨틱한 감정이 일어나거나 신체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 결합을 이루게 하는 등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도록 하는 욕망(동기적 속성)인 열정 및 ③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을 계속 지킬겠다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결정 및 개입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Sternberg가 제시

한 사랑의 정의를 일부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Sternberg가 주장한 사랑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인 결정 및 개입은 본 연구에서 이혼의도의 선행 변인으로 다루게 되는 개입의 개념과 상당부분 중복되어서 제외하였다. Sternberg가 다루는 열정 또한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등 오랜 기간 함께 한 부부관계에서 경험되기 어려운 문항들을 제외하고 성관계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문항들을 위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상대의 행복을 지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친밀성과 배우자에 대한 성적 열정을 포함하는 애정으로 정의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관계의 해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Berg와 McQuinn(1986)은 데이트관계에 있는 커플들을 4개월 간격을 두고 조사하였는데, 4개월 후의 시점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플들은 관계가 깨진 커플들보다 첫 시기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 수준이 높았던 커플들이었다. 또한 Hill, Rubin 및 Peplau(1976)의 연구에서 애정의 한 지표인 친밀성 수준은 데이트관계의 지속이나 해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Huston, Caughlin, Houts, Smith, 및 George (2001)는 신혼부부들의 결혼생활과 첫 2년 동안의 부부관계에서의 변화 가운데 어떤 요인들이 13년 후의 결혼 상태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애정의 감소는 이혼한 사람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연구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 즉 배우자에게 친밀

감과 애정을 느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다.

### 상호의사소통

부부간에 의사소통 상에 문제가 있거나 파괴적 언쟁이 잦을 경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성적 매력, 개입, 우정과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하고 이혼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Scott, Howard, Michelle, & Leber, 1995). 의사소통에서의 문제가 결혼만족과 이혼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Rogge와 Bradbury(1999)는 38쌍의 신혼부부들을 4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8번 측정하는 종단 연구를 하였는데,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4년 후에까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의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또한 Guy Bodenmann(1997)이 여러 종단 연구들을 요약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 기술을 구비한 커플들이 그렇지 못한 커플들보다 관계에 보다 만족하고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의사소통 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Skaldeman과 Montgomery(1999)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이들은 결혼생활 중이거나 이혼한 남녀 56명에게 여러 가치들을 주고, 자신의 결혼관계와 관련해서 각각의 가치들의 중요성 및 달성 여부를 평정시켰다. 그 결과, 결혼생활 중인 사람과 이혼한 사람 모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이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서 의사소통에 덜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의사소

통에서의 문제는 별거 중인 커플들의 이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Stephen과 Robert(1995)는 별거 중인 5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거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의사소통에서의 차이와 애정의 결여가 이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결혼관계에 만족하고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다.

### 개입(commitment)

개입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 심리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경향(Rusbult, 1983, p.102)이나 관계에 대한 의존감(Rusbult & Buunk, 1993), 혹은 앞의 두 요소와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Johnson, 1982). 본 연구에서는 개입을 크게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 즉 관계에 대한 의존감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책임감으로 정의하였다. 개입의 정의 가운데 관계에 대한 애착은 애정과 상당 부분 중복되며, 개입을 구성하는 다른 두 요인의 선행변인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관계개입을 관계에 대한 의존감과 지속의 의무 및 책임감으로 정의하면 Thibaut와 Kelley(1959)의 의존성이나 Levinger(1979)의 관계옹집성도 넓은 의미에서 관계개입으로 볼 수 있다.

관계개입이 결혼관계의 지속이나 해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Thibaut와 Kelley(1959)의 상호의존이론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이래, Levinger(1979), Rusbult(1980, 1983), 그리고

Treas와 Bengtson(1987)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이들은 결혼관계에 개입될수록 관계를 해체하기 어렵게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개입과 관계 해체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었다(e.g., Rusbult, 1983; Lauer & Lauer, 1987).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근거로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관계개입은 관계해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부부들은 부부관계에 개입될수록, 즉 부부관계에 의존되고 부부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낄수록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다.

### 대안관계(alternatives)

대안관계 혹은 대안관계의 질은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현재 관계의 해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관계 해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Thibaut와 Kelley(1959)는 대안관계의 질, 즉 대안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관계를 해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Thibaut와 Kelley 이후에 대안관계는 현 관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예컨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대안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다.

한편 Levinger(1979)는 대안관계가 관계의 해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의 매력력이 그 관계를 떠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안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독립성과 자기실현 및 배우자 이외에 성관계 상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vinger의 이론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부부들은 결혼관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의도가 높을 것이다.

### 과거 투자 및 이혼 장애 요인

투자는 이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관계에 개입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관계에 투자한 수준과 관련된 Rusbult(1983)의 주장을 살펴보자. Rusbult는 Thibaut와 Kelley의 주장을 확장하여 투자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투자 모델에 따르면, 관계의 지속여부는 관계에 개입된 수준에 의존하며, 관계에 대한 개입은 관계만족과 대안의 질 이외에 그 관계에 투자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관계에 대한 개입은 관계에 보다 만족하고 현재의 관계 보다 낮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때, 그리고 관계에 중요한 자원 혹은 많은 자원을 투자했을 때 증가된다. 투자는 내적 투자와 외적 투자로 구분되는데, 내적 투자는 시간이나 정서적 노력 및 자기 노출처럼 관계에 직접 투입하는 자원을 말하며 외적 투자는 서로의 친구나 공유기억 혹은 공유 재산 등 관계와 얽혀서 연결되는 외적 자원들을 의미한다. Rusbult(1983)는 연애관계를 지속한 사람들과 관계가 와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7개월 동안 13시점에 걸쳐서 관계만족, 투자, 대안 및 개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연구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한 사람들은 관계가 해체된 사람들에 비해서 만족이나 투자 수준 및 개입이 크게 증가하고 대안의 질은 감소한 사람들이었다.

관계의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요인으로 투자 대신 장애 요인들을 제안한 Levinger(1979)

는 관계에 대한 매력과 대안관계의 매력 및 해체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관계의 해체 결정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들로 관계에 대한 매력과 관계를 떠나는 것을 제지하는 힘을, 관계를 떠나도록 하는 유인들로 대안관계의 매력을 들었다. 즉 사람들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상대를 떠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가용한 대안의 매력이 크면 결혼관계를 해체할 것으로 예언하였다. 그는 이혼의 장애 요인으로 이혼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적 지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종교적 제약, 주변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력 및 자녀들에 대한 감정을 들고 이 요인들이 이혼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주변사람들의 영향

Levinger가 이혼의 장애 요인으로 분류한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압력은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변인이다. 한국사회는 서구와 달리 결혼을 일 대 일의 결합으로 보기보다는 가족과 가족 간 결합으로 여길만큼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배우자 가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혼생활의 만족 및 결혼관계의 해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근거해서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을 이혼의 장애 요인과 독립된 변인으로 다루었다.

주변사람들이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 그 하나는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이혼을 권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

들이 이혼을 반대할 경우 이는 이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람들은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리고 이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다.

### 비교수준

일부 사회적 교환이론들은 관계에 대한 만족과 개입이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성과들의 절대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과 비교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Thibaut와 Kelley(1959)는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성과들을, 그들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성과들(기대수준)과 비교하며 이 결과에 의해서 관계만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usbult(1981, 1983)도 관계에 대한 만족이 관계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자신의 기대와 비교한 결과로 얻어지며, 이를 통해서 개입과 관계의 해체가 결정된다고 제안하였다. 사람들이 특정 관계에서 갖게 될 성과에 대한 기대수준은 대체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성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소 자신이 결혼생활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 이외에도 결혼한 주변 사람들이 결혼관계에 만족하는 수준을 포함하여 비교수준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결혼생활에 대해서 기대한 수준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이 나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을 것이다.

### 성차

지금까지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예측변인들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이 예측변인들의 수준에서, 그리고 이 예측변인들이 관계의 해체 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족할 수 있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예전보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가사와 육아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는 상당한 시간과 주의와 정력이 요구되며 이 때문에 여성들은 다른 기간보다 육아기간 동안 보다 많은 결혼 불만족을 보고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결혼생활이 전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대체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생활은 곧 전체 생활을 대표하는 반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하는 남성들에게서 결혼생활은 전체 생활의 일부분이 된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이 직장에서의 지친 하루를 쉬게 하는 휴식의 시간이기 쉬우며 아내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더 느끼며 결혼관계에 더 의존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혼의도도 낮을 것이다. 반면에 결혼관계에 투자한 수준은 여성보다 낮으며, 경제적 능력과 사회생활의 경험 등의 요인으로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은 여성보다 더 많을 것이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예를 들어, Fowers(1991)가 7,261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결혼생활에 다소 더 만족해 하였다. Haynes 등(1992)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에 관한 네 특징들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만족해 하였다. 한편 Gilford와 Bengtson(1979), 그리고 Levenson et al.(1993)은 결혼만족과 관련해서 성차가 없었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도 결혼문제나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Swensen et al., 1981, 1984; Swensen & Fuller, 1992; Swensen & Moore, 1979). 본 연구에서는 각 예측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 예측변인들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도 살펴보겠다.

## 방법 및 절차

### 조사대상

조사는 1997년 9월에서 12월, 그리고 1998년 3월에서 4월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는 삼성생명 과 화재에 근무하는 기혼자들에게 직접 배부한 후 기입하게 하거나, 서울시와 대구시, 대전시 및 전주시의 대학생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반송용 봉투가 동봉된 질문지를 주게 해서 조사대상이 작성 후 직접 우체통에 넣도록 하는 우편 회수를 통해서 얻었다. 배부된 1000부 가운데 531부가 회수되어 53.1%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학생이 직접 기술했다고 의심되는 자료나 질문지의 반 이상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 38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체 493명(남 246, 여 247)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 1. 전체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

연 령	N %		결혼기간	N %		가족구성	N %		자녀	N %		초 혼	N %		별거경험	N %	
	N	%		N	%		N	%		N	%		N	%		N	%
30세이전	141	(28.6)	5년 내	185	(37.5)	부부가족	63	(12.7)	없다	69	(13.9)	초 혼	478	(96.9)	있다	41	(8.3)
31-40세	182	(36.9)	6-10년	90	(18.2)	핵가족	350	(70.9)	1명	130	(26.3)	아니다	8	(1.6)	없다	447	(90.6)
41-50세	119	(24.1)	11-15년	53	(10.7)	시부모와	51	(10.3)	2명	231	(46.8)	무응답	7	(1.4)	무응답	5	(1.0)
51-61세	50	(10.1)	16-20년	58	(11.7)	친정부모와	11	(2.2)	3명이상	66	(12.3)						
무응답	1	(0.2)	21-25년	84	(17.0)	기타	14	(2.8)	무응답	2	(0.4)						
			26-30년	16	(3.2)	무응답	4	(0.8)									
			무응답	7	(1.4)												

  

직업	본인						배우자						고육수준	본인						배우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있다	229	(93.0)	151	(61.1)	380	(77.0)	94	(38.2)	223	(90.2)	317	(64.3)	중졸이하	8	(3.2)	16	(6.4)	24	(4.8)	22	(8.9)	13	(5.2)	35	(7.0)
없다	13	(5.2)	90	(36.4)	103	(20.8)	133	(54.0)	11	(4.4)	144	(29.2)	고등졸업	64	(26.0)	123	(49.7)	187	(37.9)	92	(37.3)	72	(29.1)	164	(33.2)
무응답	4	(1.6)	6	(2.4)	10	(2.0)	19	(7.7)	13	(5.2)	32	(6.4)	대학이상	172	(69.9)	103	(41.7)	275	(55.7)	119	(48.3)	152	(61.5)	271	(54.9)
												무응답	2	(0.8)	5	(2.0)	7	(1.4)	13	(5.2)	10	(4.0)	23	(4.6)	

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 질문지의 구성 및 절차

질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는데, 남편용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지칭하는란에 '아내'를, 아내용 질문지의 경우에는 '남편'을 적어 넣은 점만 제외하고 두 질문지의 내용은 동일했다. 조사대상에게 결혼만족, 배우자에 대한 애정, 관계개입, 대안관계, 이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사회망 및 이혼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게 하고(9점 척도),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질문에 응답토록 했다.

### 변인들의 측정

비교수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으로 정의하고, 결혼 전에 결혼생활에 대해서 기대한 수준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된 기대수준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애정: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 배우자의 행복을 지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친밀성, 상호 소통을 통한 일체감 형성 및 배우자에 대한 성적 열정을 포함하는 애정으로 정의하였다. 각 요소 별로 친밀성을 측정하는 6문항, 상호 소통 수준을 측정하는 6문항, 그리고 애정을 측정하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혼만족: 결혼만족은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태도로 정의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측정하는 5문항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과거투자: 투자는 관계에 투입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입: 개입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모든 힘으로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몰입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4문항과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 및 책임감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혼할 경우의 대안: 이혼할 경우의 대안은 이혼할 경우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과 재혼 상대 및 다른 대안 여부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혼장애 요인: 결혼관계를 해체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내적, 외적 압력으로 정의하고, 이혼의 법적 처리나 자녀 문제, 신념이나 종교 및 이혼한 사람에 대한 주위의 편견 등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망: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으로, 크게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측정하는 3문항과 이들의 이혼 반대 압력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혼의도: 이혼의도는 이혼이나 별거를 원하고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시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혼 혹은 별거하고 싶은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 직접적 이혼 시도의 경험을 측정하는 4문항, 장차의 이혼 계획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확실히 그렇다(9)에 이르는 9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 자료의 분석

일차적으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단일 구성개념을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서 이후 분석에서는 구성개념을 이루는 문항들의 평정치를 평균한 단일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결혼한 부부들의 이혼의도, 이혼시도 및 이혼계획과 예측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이 예측변인들과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 변인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여서 예측변인들이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미치는 독자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이 변인들의 예언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중다회귀분석으로 알아내었다. 이혼의도, 이혼시도 및 이혼계획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여러 예측 변인들을 함께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예측력이 있고 어느 예측 요인이 중요한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하나의 예측변인과 준거 변인의 단순상관이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더라도 여러 예측변인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상관분석 이외에 단순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내었다.

## 결 과

### 구성개념들의 확인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개개 변인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로 계산했으며 요인부하량은 공통변량(communality)의 초기값을 중

다상관자승(SMC)으로 한 주측요인법을 사용하여 얻었다. 변인들의 신뢰도, 변인을 이루고 있는 문항, 문항-전체 상관 및 요인부하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신뢰도가 .68 이상이었던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변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치를 변인들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과 예측변인들의 평균 및 성별 차이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의 이혼의도, 이혼시도 및 이혼계획 수준과 이 변인들의 예측변인으로 사용된 비교수준, 배우자에 대한 애정, 상호의사소통 수준, 결혼생활 만족, 결혼관계에 투자한 수준, 관계 개입,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 이혼의 장애 요인, 주변사람들의 영향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배우자를 사랑하고(친밀감 평균 7.14, 애정 6.65) 결혼생활에 만족하며(6.44) 현재의 부부관계에 개입된 상태였다(현재 개입 6.68, 의무·책임감 7.74). 또한 이혼의도가 매우 낮으며(2.37) 이혼의 시도 경험(1.80)이나 계획(1.76)이 없는 편이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결혼생활에 더 만족해했고(남편 6.96, 아내 5.93), 부부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으며(남편 7.05, 아내 6.31),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더 느끼고 있었다(남편 7.90, 아내 7.58). 또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 수준도 높았고(남편 7.48, 아내 6.81),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남편 6.66, 아내 6.17). 그리고 남편들(5.81)은 아내들(5.12)보다 결혼 전의 기대에 비해서 현재의 결혼

표 2 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 측정의 신뢰도, 문항-총점 상관계수 및 요인부하량

문항	신뢰도	문항-총점 상관	요인 부하량
<b>애정</b>	.90		
우리 부부는 서로 애정 표현을 잘하는 편이다	.67	.70	
우리 부부는 신체적 애정 접촉이 별로 없다(-)	.75	.78	
우리 부부는 성관계에 만족한다		.61	.64
우리 부부관계는 형식적이다(-)		.76	.79
남편(아내)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럽다(-)		.77	.82
남편(아내)은 나에게 애정을 못 느낀다(-)		.75	.81
남편(아내)은 나에게 성적인 관심이 없다(-)		.76	.81
<b>친밀감</b>	.88		
나는 남편(아내)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72	.77
내 남편(아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67	.73
나는 남편(아내)이 소중하다		.76	.81
나는 남편(아내)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61	.65
나는 남편(아내)을 사랑한다		.78	.83
나는 남편(아내)과 떨어져 있으면 허전하게 느낀다	.64	.68	
<b>상호의사소통</b>	.92		
우리 부부는 마음이 잘 통한다		.81	.86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잘 이해한다		.83	.87
나는 남편(아내)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78	.82
우리 부부는 서로 속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83	.86
우리 부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75	.78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		.70	.72
<b>비교수준</b>	.89		
결혼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현재 결혼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73	.77
다른 사람들의 결혼생활과 비교해 볼 때 당신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신 편?		.81	.86
당신의 현재 결혼생활은 결혼 전에 비해서 행복하신 편입니까?		.80	.86
<b>결혼생활 만족</b>	.95		
나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		.83	.85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82	.84
나의 결혼생활은 권태롭다(-)		.71	.73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라던 것들이 충족되었다		.69	.71
나는 남편(아내)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84	.86
나는 남편(아내)에 대해서 만족한다		.82	.84
나는 남편(아내)에게 불만이 많다(-)		.74	.75
나는 남편(아내)이 지겹다(-)		.82	.85
나는 마지 못해 남편(아내)과 함께 산다(-)		.78	.81
나는 현재 남편(아내)과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86	.88

표 2 계속.

문 항	신뢰도	문항-총점	요인 부하량	상관
부부관계 개입				
현재 개입	.74			
만약 남편(아내)과 이혼한다면 자유롭게 홀가분할 것이다(-)		.57		.66
나는 남편(아내)과 헤어져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50		.58
나는 남편(아내)과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어렵다		.52		.61
나는 남편(아내)과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헤어질 엄두가 나지않는다		.57		.65
의무감·책임감	.75			
나는 결혼관계를 계속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48		.56
결혼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48		.57
나는 남편(아내)과 이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66		.75
나는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56		.66
과거 투자	.73			
나는 결혼생활에 내 정성을 다 쏟아 왔다		.63		.80
나는 결혼한 후 남편과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다		.69		.82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		.29		.33
나는 남편(아내)과 헤어질 수 없을 만큼 결혼생활에 노력을 기울였다		.53		.59
결혼 이외의 대안관계	.68			
나는 이혼하고 싶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다(-)		.52		.66
나는 이혼하고 싶어도 경제적문제 때문에 헤어질수 없다(-)		.54		.68
나는 이혼하고 싶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혼할 수 없다(-)		.35		.46
나는 남편(아내)과의 결혼생활 이외에 다른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다(-)		.27		.32
만약 남편(아내)과 헤어지더라도 경제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52		.61
만약 남편(아내)과 헤어지더라도 나는 재혼할 상대를 구할 수 있다		.31		.38
이혼의 장애	.69			
나는 이혼하고 싶더라도 자녀들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45		.55
나는 이혼하려 해도 여러가지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47		.57
나는 이혼하고 싶더라도 이혼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염려된다		.40		.49
나는 남편(아내)과 헤어지고 싶더라도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46		.56
이혼하고 싶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종교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41		.49
이혼하고 싶더라도 이혼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른다		.34		.41
주변과 친밀관계 유지	.70			
나는 남편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0		.65
남편은 나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8		.63
남편과 나의 가족(친정)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5		.47
나는 남편의 가족(시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8		.50
주변의 이혼 권유	.83			
나의 가까운 친구가 이혼하도록 권한다		.63		.68
시댁 식구들이 이혼하도록 권한다		.72		.79
친정 식구들이 이혼하도록 권한다		.75		.82

이혼의도			
이혼/별거의도	.93		
나는 남편(아내)과 함께 살 의사가 없다		.78	.80
나는 남편(아내)과 한동안 떨어져 살고 싶다		.85	.88
나는 남편(아내)과 별거하고 싶다		.91	.93
나는 남편(아내)과 이혼하고 싶다		.85	.88
나는 언젠가는 남편(아내)과 이혼하겠다		.79	.83
남편(아내)과 헤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73	.75
이혼시도	.88		
지난 6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친구와 의논한 적이 있다		.73	.77
지난 6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부모와 의논한 적이 있다		.76	.79
지난 6개월 동안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이나 위자료 문제를 알아본 적이 있다		.79	.87
지난 6개월 동안 이혼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76	.84
이혼계획	.77		
가까운 장래에 이혼할 작정이다		.67	.75
나는 남편(아내)과의 관계가 오래 동안 지속되길 원한다		.60	.69
나는 남편(아내)과 이혼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57	.65

주) (-)는 역코딩했음을 의미한다.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으며, 배우자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각 하였다(남편 6.02, 아내 5.39). 또한 남편들은 아내들에 비해서 이혼의도 수준도 낮았다. 구체적으로

표 3. 이혼의도, 이혼시도 및 이혼계획과 예측변인들의 성별 평균 및 차이검증(t값)

	남		여		전체		t값
	MEAN	STD	MEAN	STD	MEAN	STD	
비교수준	5.81(1.6)		5.12(1.6)		5.46(1.6)		4.60***
친 밀 감	7.48(1.2)		6.81(1.6)		7.14(1.4)		5.11***
애 정	6.78(1.5)		6.53(1.7)		6.65(1.6)		1.69†
상호의존	6.66(1.5)		6.17(1.7)		6.41(1.6)		3.24***
결혼생활만족	6.96(1.4)		5.93(1.8)		6.44(1.7)		6.96***
과거투자	6.36(1.3)		6.66(1.4)		6.51(1.3)		-2.37*
의존도	7.05(1.4)		6.31(1.6)		6.68(1.6)		5.21***
의무·책임감	7.90(1.0)		7.58(1.4)		7.74(1.2)		2.88**
결혼 이외 대안	6.44(1.3)		5.50(1.6)		5.97(1.5)		6.74***
이혼의 장애	4.88(1.6)		5.38(1.7)		5.13(1.7)		-3.22**
이혼반대입력	8.15(1.0)		7.96(1.3)		8.05(1.2)		1.69†
주변인과 친밀관계	6.02(1.3)		5.39(1.5)		5.70(1.4)		4.77***
이혼의도	2.05(1.3)		2.68(1.8)		2.37(1.6)		-4.33***
이혼시도	1.57(1.1)		2.02(1.6)		1.80(1.4)		-3.55***
이혼계획	1.62(1.2)		1.91(1.4)		1.76(1.3)		-2.29*

표 4. 이혼의도, 이혼시도 및 이혼계획과 예측변인들간 단순상관

	비교수준	친밀감	애정	상호소통	결혼만족	과거투자	의존도	의무·책임	대안관계	이혼장애	이혼반대	주변인친밀	이혼의도	이혼시도	이혼계획
비교수준		.71***	.64***	.72***	.82***	.19**	.64***	.36***	.13*	-.07	.45***	.49***	-.72***	-.51***	-.43***
친밀감	.76***		.72***	.79***	.81***	.16*	.66***	.41***	.21***	-.15*	.51***	.51***	-.74***	-.49***	-.42***
애정	.70***	.75***		.74***	.73***	.18**	.55***	.33***	.28***	-.18**	.42***	.53***	-.62***	-.34***	-.39***
상호소통	.68***	.76***	.76***		.80***	.16*	.60***	.28***	.19**	-.22***	.46***	.55***	-.68***	-.39***	-.34***
결혼만족	.78***	.83***	.79***	.78***		.14*	.69***	.33***	.21***	-.19**	.53***	.53***	-.78***	-.51***	-.42***
과거투자	.41***	.50***	.39***	.48***	.41***		.26***	.32***	-.09	.17**	.15*	.09	-.15*	-.16*	-.13*
의존도	.59***	.74***	.59***	.60***	.71***	.39***		.49***	-.13*	.01	.53***	.46***	-.77***	-.54***	-.44***
의무·책임	.36***	.49***	.41***	.39***	.45***	.36***	.54***		-.04	.13*	.42***	.19**	-.44***	-.38***	-.36***
대안관계	.03	.10	.23***	.15*	.10	.02	.00	.12†		-.46***	.06	.20**	-.12†	-.09	-.11
이혼장애	-.10	-.17**	-.22***	-.16*	-.17*	-.01	-.08	.00	-.31***		-.01	-.15*	.10	.06	.01
이혼반대압력	.46***	.54***	.50***	.46***	.56***	.27***	.57***	.55***	.25***	-.13*		.35***	-.63***	-.58***	-.60***
주변인과 친밀	.54***	.59***	.62***	.60***	.60***	.30***	.41***	.29***	.10	-.16*	.39***		-.45***	-.28***	-.22***
이혼의도	-.71***	-.79***	-.72***	-.68***	-.81***	-.35***	-.72***	-.51***	-.15*	.23***	-.66***	-.54***		.70***	.56***
이혼시도	-.46***	-.52***	-.48***	-.47***	-.55***	-.22***	-.45***	-.41***	-.23***	.16*	-.60***	-.32***	.71***		.66***
이혼계획	-.32***	-.40***	-.36***	-.34***	-.40***	-.07	-.47***	-.33***	-.25***	.06	-.41***	-.28***	.59***	.57***	

주) 표에서 왼쪽 하단에 제시한 상관계수 행렬은 남편 자료, 오른쪽 상단은 아내 자료에서 산출한 값이다.

남편들은 아내들에 비해서 이혼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았으며(남편 2.05, 아내 2.68), 이혼시도(남편 1.57, 아내 2.02)나 계획의 수준도 낮았다(남편 1.62, 아내 1.91). 한편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결혼 생활에 덜 투자하고 노력을 덜 기울였으며(남편 6.36, 아내 6.66),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지각하였고(남편 6.44, 아내 5.50) 이혼에 따른 장애를 덜 느끼고 있었다(남편 4.88, 아내 5.38). 배우자에 대한 애정 수준( $t=1.69$ ,  $p<.10$ )과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압력( $t=1.69$ ,  $p<.10$ )은 유의수준 .05로 해석한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과 예측변인들의 단순상관**

성별로 구분하여 이혼의도, 이혼시도 및 이혼계획과 다른 예측변인들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

하였으며,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남편들과 아내들의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편들의 경우 이혼의도는 다른 예측변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혼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예측변인들부터 차례대로 소개하면, 결혼만족( $r=-.81$ ), 친밀감( $r=-.79$ ), 애정( $r=-.72$ ), 의존도( $r=-.72$ ), 비교수준( $r=-.71$ ), 상호의사소통( $r=-.68$ ),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 $r=-.66$ ), 주변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r=-.54$ ), 의무·책임감( $r=-.51$ ), 과거투자( $r=-.35$ ), 이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 $r=.23$ )순이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 $r=-.15$ )은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들은 결혼 생활에 만족할수록, 배우자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느낄수록, 그리고 현재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결혼 전의 기대에 비해 현재의 결혼생활이 낮다

고 생각될수록,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또한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리고 현재의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낄수록, 결혼생활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혼할 경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한편 가설과는 달리 현재의 결혼관계 이외에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다음으로 이혼시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구성개념들은 차례대로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 $r=-.60$ ), 결혼만족( $r=-.55$ ), 친밀감( $r=-.52$ ), 애정( $r=-.48$ ), 상호의사소통( $r=-.47$ ), 비교수준( $r=-.46$ ), 의존도( $r=-.45$ ), 의무·책임감( $r=-.41$ ), 주변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r=-.32$ ), 과거투자( $r=-.22$ )순이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혼의 장애 요인( $r=.16$ )은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대안관계( $r=-.23$ )는 이혼의도와 상관계수분석 결과에서처럼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들은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배우자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느낄수록,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결혼 전에 기대한 바에 비하여 현재의 결혼생활이 낮다고 생각될수록 이혼을 시도해 본 경험이 적었다. 또한 현재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현재의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낄수록,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리고 결혼생활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혼할 경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을수록 이혼시도 경험이 적었다. 이혼의도에 대한 결과에서와 달리, 이혼시도에서는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이 이혼시도 경험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은 이혼시도와의 상관관계에서도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유의해서 결혼관계 이외에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시도 경험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의 이혼계획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예측변인들은 차례대로 의존도( $r=-.47$ ),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 $r=-.41$ ), 결혼만족( $r=-.40$ ), 친밀감( $r=-.40$ ), 애정( $r=-.36$ ), 상호의사소통( $r=-.34$ ), 의무·책임감( $r=-.33$ ), 비교수준( $r=-.32$ ), 주변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r=-.28$ ), 대안관계( $r=-.25$ )순이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혼의도나 이혼시도와의 상관분석 결과와는 달리 과거투자나 이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이혼계획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들은 현재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배우자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느낄수록 이혼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현재의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낄수록, 결혼 전의 기대에 비해서 현재의 결혼생활이 낮다고 생각될수록, 그리고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이혼계획이 없었다. 이혼의도나 이혼시도에서와 달리, 결혼관계에 의존한 수준이 이혼계획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은 이혼계획에서도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유의해서 현재의 결혼관계 이외에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계획이 없었다.

다음으로 아내들의 자료를 살펴보자. 남편들의 결과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아내들의 경우, 대안과 이혼의 장애가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안과

이혼 장애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과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혼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예측변인들은 차례대로 결혼만족( $r=-.78$ ), 결혼관계에 의존하는 수준( $r=-.77$ ), 친밀감( $r=-.74$ ), 결혼 전 기대와 현재의 결혼생활이 유사한 수준( $r=-.72$ ), 상호 의사소통( $r=-.68$ ),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 $r=-.63$ ), 애정( $r=-.62$ ), 주변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유지( $r=-.45$ ),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책임( $r=-.44$ )순이었으며, 이 변인들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과거투자( $r=-.15$ )는  $p<.05$  유의수준에서 이혼의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아내들은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결혼관계에 의존할수록,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낄수록, 결혼 전 기대에 비해서 현재의 결혼생활이 나올수록, 부부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클수록,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낄수록, 결혼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한편 아내들에게서 이혼시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예측변인들은 순서대로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 $r=-.58$ ), 결혼관계에 의존하는 수준( $r=-.54$ ), 결혼만족( $r=-.51$ ), 결혼 전의 기대와 현재의 결혼생활이 유사한 수준( $r=-.51$ ), 친밀감( $r=-.49$ ), 상호 의사소통( $r=-.39$ ), 결혼관계를 지속하고자하는 의무·책임( $r=-.38$ ), 애정( $r=-.34$ ), 주변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 $r=-.28$ )순이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과거투자( $r=-.16$ )는 이혼의도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혼시도와도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서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내들은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결혼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결혼 전의 기대에 비해서 현재의 결혼생활이 나올수록,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낄수록, 부부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이혼시도 경험이 적었다. 또한 결혼관계를 지속하고자하는 의무와 책임이 강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클수록,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리고 결혼생활에 노력을 기울였을수록 이혼시도 경험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이혼계획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예측변인들은 차례대로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 $r=-.60$ ), 결혼관계에 의존하는 수준( $r=-.44$ ), 결혼 전 기대와 현재의 결혼생활이 유사한 수준( $r=-.43$ ), 결혼만족( $r=-.42$ ), 친밀감( $r=-.42$ ), 애정( $r=-.39$ ),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무·책임( $r=-.36$ ), 상호 의사소통( $r=-.34$ ), 주변사람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 $r=-.22$ )순이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과거투자( $r=-.13$ )는 이혼계획과의 상관관계 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내들은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결혼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결혼 전 기대에 비해서 현재의 결혼생활이 낮다고 여길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배우자에 대해 친밀감과 애정을 느낄수록 이혼계획이 없었다. 또한 결혼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무와 책임이 강할수록, 부부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주변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리고 결혼생활에 노력을 기울였을수록 이혼계획이 없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만족은 이혼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표 5. 남편들의 이혼의도, 이혼시도 및 이혼계획의 중다예언

이혼의도				이혼시도				이혼계획			
단계	변인	R <sup>2</sup>	증가R <sup>2</sup>	단계	변인	R <sup>2</sup>	증가R <sup>2</sup>	단계	변인	R <sup>2</sup>	증가R <sup>2</sup>
1	결혼만족	0.645***		1	이혼반대압력	0.357***		1	의존도	0.217***	
2	이혼반대압력	0.709	0.063***	2	결혼만족	0.423	0.066***	2	결혼의 대안	0.279	0.061***
3	친밀감	0.736	0.027***	3	결혼의 대안	0.432	0.008†	3	과거투자	0.296	0.016*
4	의존도	0.745	0.008**					4	이혼반대압력	0.307	0.011†
5	이혼장애	0.751	0.006*								
6	비교수준	0.756	0.005*								

반면, 이혼시도나 이혼계획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혼시도나 이혼계획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서 달랐다. 구체적으로 남편들의 경우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이 이혼시도와, 결혼관계에 의존하는 수준이 이혼계획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내들의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이 이혼시도나 이혼계획과 모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남편들에게서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은 이혼의도나 시도 및 계획과 상관관계를 보여서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이 낮았던 반면, 아내들의 경우 대안 수준은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내들의 경우 이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또한 남편들과 달리,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의 중다예언**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하였다.

예측변인들 간의 상호 상관이 높았기 때문에 동시회귀분석 대신 단순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남편)와 표 6(아내)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남편들의 이혼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 수준으로서 이 변인만으로 이혼의도의 64.5%가 설명되었다. 결혼만족 수준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6.3%)였고, 그 다음이 차례대로 친밀감(2.7%), 결혼관계에 의존하는 수준(0.8%), 이혼의 장애요인(0.6%), 그리고 결혼 전 기대와 현재 결혼생활이 유사한 수준(0.5%) 순이었다. 이 예측변인들은 이혼의도의 75.6%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편들은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낄수록, 그리고 현재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또한 이혼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을수록, 결혼 전의 기대보다 현재의 결혼생활이 낮다고 생각될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상관관계에서의 결과와 달리, 부부에 대한 애정이나 의사소통 수준, 주변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표 6. 아내들의 이혼의도, 이혼시도 및 이혼계획의 종다예언

이혼의도			이혼시도			이혼계획		
단계	변인	R <sup>2</sup>	단계	변인	R <sup>2</sup>	단계	변인	R <sup>2</sup>
1	결혼만족	0.602***	1	이혼반대압력	0.339***	1	이혼반대압력	0.361***
2	의존도	0.704	2	비교수준	0.418	2	비교수준	0.394
3	이혼반대압력	0.738	3	의존도	0.441	3	의무·책임	0.400
4	비교수준	0.749	4	상호소통	0.451			
5	친밀감	0.757	5	결혼의 대안	0.461			
6	결혼의 대안	0.761	6	애정	0.468			
7	주변인영향	0.764						

책임 및 대안 수준은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혼의도에서와 달리 이혼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과 결혼만족 뿐이었다. 두 변인은 이혼시도 변량 가운데 42.3%를 설명하였으며, 이 가운데 35.7%는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으로 설명되었다. 즉 남편들의 경우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이 이혼시도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이혼시도 경험이 적었다. 그 다음이 결혼만족 수준으로 이혼시도 경험의 6.6%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의 이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결혼관계에의 의존도,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 및 결혼관계에 투자한 수준이었다. 이 세 변인은 이혼계획의 29.6%를 설명하였으며, 이 가운데 결혼관계에 의존하는 수준이 21.7%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편들은 결혼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결혼관계 이외에 대안이 있을수록(6.1%), 결혼생활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을수록(1.6%) 이혼 계획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남편들의 경우 이혼

시도와 이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이혼시도 경험에는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과 결혼만족이, 장차의 이혼계획에는 관계 의존도,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 및 관계에 투자한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아내들의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남편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편들과 다른 점은 남편들의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변인들 가운데 이혼의 장애 요인이 아내들의 이혼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신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이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아내들의 이혼의도도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결혼만족에 의해서 가장 잘 예측되었다. 결혼만족 수준은 이혼의도의 60.2%를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이 관계 개입 수준으로 이혼의도의 10.1%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은 차례대로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3.4%), 결혼 전 기대와 현재 결혼생활이 유사한 수준(1%), 친밀감(0.8%), 그리고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0.4%) 순이었다. 이 예측변인들은 이혼의도의 76.1%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내들은 결혼

생활에 만족할수록, 현재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친구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결혼 전의 기대에 비해서 현재의 결혼생활이 낮다고 생각될수록,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낄수록, 그리고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한편 상관관계의 결과와 달리, 부부간의 애정이나 의사소통 수준, 주변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혼의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은 중다회귀분석에서 이혼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아내들의 이혼시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 현재 결혼생활이 결혼 전 기대와 유사한 수준, 결혼관계의 개입수준, 부부간의 상호의사소통수준, 및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이었다. 이혼의도를 예측하였던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과 친밀감 등 부부간의 애정과 태도는 이혼시도의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신 부부간 상호의사소통 수준이 이혼시도의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은 이혼시도 경험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이혼시도의 33.9%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은 비교수준으로 이혼시도의 7.9%를 설명하였으며, 차례대로 결혼관계의 개입수준(2.3%), 부부간의 상호의사소통 수준(0.9%),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1%) 순으로 이혼시도를 설명하였다. 이 예측변인들로 이혼시도 변량의 46.1%가 설명되었다. 이로써 아내들은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현재 결혼생활이 결혼 전 기대보다 나올수록, 결혼관계에 의존되어 있을수록, 부부간에 상호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결혼관계 이외에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시도의 경

험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내들의 장차 이혼계획에는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 현재 결혼생활이 결혼 전 기대와 유사한 수준, 그리고 결혼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무·책임이 영향을 미쳤다.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과 비교수준은 이혼의도 및 시도 경험에도 영향을 미쳤던 변인으로 이혼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에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책임이 포함되었다.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 압력은 이혼계획에도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이혼계획의 36.1%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교수준은 이혼계획의 3.3%를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책임을 느끼는 수준(0.6%)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내들은 주변사람들이 이혼을 반대할수록, 현재의 결혼생활이 결혼 전에 기대한 바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올수록, 그리고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낄수록 이혼할 계획이 없었다.

요약하면 아내들의 경우에도 이혼의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생활에 자신이 만족한 수준이었으나 직접 이혼을 시도한 경험이나 장차 이혼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변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한국의 부부는 결혼관계의 지속과 해체 결정에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혼한 남성 246명과 여성 247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먼저 이들의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과 예측변인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전반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결혼생활에 만족하며 현재의 부부관계에 개입된 상태였다. 또한 이혼의도가 매우 낮으며 이혼의 시도 경험이나 계획이 없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결혼생활에 더 만족해하고 부부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으며,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 수준도 높고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결혼 전의 기대보다 현재의 결혼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으며, 배우자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남편들은 아내들에 비해서 이혼의도 수준도 낮았다.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결혼생활에 덜 투자하였고,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지각하며 이혼에 따른 장애를 덜 느끼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애정 수준과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압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내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과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혼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 만족 수준이었으며, 각각 이혼의도의 64.5%와 60.2%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결혼만족은 이혼시도나 계획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아니었다. 남편과 아내의 이혼시도 경험, 그리고 아내의 이혼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변사람들의 이혼반대였으며, 남편에게 있어서 이혼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결혼관계에의 의

존도였다. 이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어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게 하기는 하나, 이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주변사람들의 이혼 만류는 아내와 남편의 이혼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내의 경우 장차 이혼하고자 하는 계획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한국의 부부는 결혼관계의 지속과 해체 결정에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변사람들의 이혼 만류는 남편들의 이혼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 대신 결혼관계에의 의존도가 장차의 이혼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 외에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결혼관계에 얼마나 투자해 왔는지가 남편들의 이혼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다른 방향으로 이혼의도나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남편들의 경우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시도의 경험이 적고 이혼계획이 없었으며, 아내들의 경우에는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의도가 낮고 이혼시도의 경험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혼관계에 불만족한 사람보다는 만족한 사람, 배우자를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안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대안관계의 존재와 이혼의도의 관계가 결혼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수준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결혼 만족수준과 배우자 평가수준을 중간점(9점 척도에서 5점)을 기준으로 결혼불만족 집단과 결혼만

족 집단, 배우자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지닌 집단과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지닌 집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각 집단 별로 대안관계수준과 이혼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불만족 집단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지닌 집단에서는 대안 여부나 대안수준이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결혼관계에 만족한 집단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호의적 감정을 지닌 집단에서는 대안이 있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았다. 이 결과는 대안과 이혼의도의 관계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배우자 평가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 극히 불만족하거나 배우자에 대해서 극히 비호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었다. 이 시사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안관계가 이혼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안관계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대안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이중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안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 가운데 “이혼하고 싶더라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이혼하고 싶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혼할 수 없다” 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에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지적한 점 외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차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결혼생활에 만족하며 부부관계에 개입되어 있고 이혼의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특히 준거변인인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을

다른 측정치들의 분포가 편포를 이룬 점은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닌 사람들의 표본을 늘려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각각의 예측변인들의 주효과를 검토하였는데 실제로 이혼의도는 다양한 예측변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측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Berg, J. H., & McQuinn, R. D.(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42-952.
- Bodenmann, G. (1997). Can divorce be prevented by enhancing the coping skills of coupl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7, 177.
- Gottman, J. M., & Levenson, R. W.(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Hill, C. T., Rubin, Z., & Peplau, L.A. Breakups before marriage: The end of 103 affairs.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47-168.
- Huston, T. L., Caughlin, J. P., Houts, R. M., Smith, S. E., & George, L. J.(2001). The

-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237-252.
- Johnson, M. P.(1982). Social and cognitive features of the dissolution of commitment to relationships. In Steven W. Duck(eds.), *Personal Relationships 4: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s*(pp.51-73). New York: Academic Press.
- Levinger, G.(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pp. 169-193). New York: Academic Press.
- Lund, M.(1985).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commitment scales for predicting continuity of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3-23
- Rogge, R. M., & Bradbury, T. N.(1999). Recent advances in the prediction of marital outcomes. R. Berger, M. T. Hannah (Eds). *Preventive approaches in couples therapy*. (pp. 331-360). Philadelphia, PA, US: Brunner/Mazel, Inc.
- Rusbult(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est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 101-117
- Rusbult, C. E.(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Rusbult, C. E., & Buunk, B. P.(1993). Commitment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 interdependence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175-204.
- Scott, M. S., Howard, J. M., Michelle, S. P., & B. Douglas Leber. (1995). Strengthening marriages and preventing divorce: new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Family Relations*, 44(4), 392.
- Skaldeman, P. & Montgomery, H.(1999). Importance and attainment of values among married and divorced coupl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0, 143.
- Stephen, B. K. & Robert, A. C. (1995). Marital separation: causes, coping, and consequenc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2, 109.
- Sternberg, R. J.(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ternberg, R. J.(1988). *A triangular theory of love*. New York: Basic Books.
- Thibaut, J. W. & Kelley, H. 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Van Yperen, N. W., & Buunk, B. P.(1990). A longitudinal study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87-309.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1. Vol. 6, No. 2, 97 - 119

---

## Predictors of divorce intention, attempt, and plan

Kyung-Seong Lee

Student Guidance & Counseling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that predict divorce intention. Comparison level, love, communication, satisfaction, commitment, investment, marital alternatives, social network, and barriers against divorce were used to predict divorce intention. Divorce intention was measured on three factors of intention, attempt, and plan. The data from a sample of 493 married individuals (male 246, female 247) were used. In predicting divorce intention of husband and wife, marital satisfac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However, in predicting divorce attempt of husband and wife and divorce plan of wife, negative attitude towards divorce of friends or families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nd in predicting divorce plan of husband, dependence on marriage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is result shows that marital dissatisfaction cause motivation to divorce or marital separation and attitudes towards divorce of friends or families cause divorce attempts.

Key words : divorce intention, comparative level, love,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commitment, investment, alternatives, barriers, social network, empirical study